

# 도심사찰 재개발 피해 '심각'

## 제기동 보현사 강제철거 위기... 방생선원 진입로 폐쇄

전통사찰주변에 고층아파트 건립, 도로건설 등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사찰환경이 크게 훼손, 사찰과 해당 시군구청, 사업 시행기간 갈등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주택개발 재개발사업으로 도심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찰들이 법외운영을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 제기동 보현사(주지 태연)는 지난달 19일 제기2구역 주택개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3월말까지 이주하지 않으면 강제철거도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재개발조합이 보낸 '이주촉박안내장'에 따르면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철거 또는 이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할 경우에는 강제철거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보현사 주지 태연 스님은 "재개발구역 내에 현재 사찰규모(대지 106평) 만큼의

종교부지에 보현사에서 원하는 건물을 지어주어야 하고 또 공사기간 동안 법외장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현사는 지난 80년 제기동 122-160, 161 현역을 매입해 도심포교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80여 세대와 신도들 등 신 행활동을 하고 있다.

재개발조합측은 "보현사에서 재개발에 반대해 종교부지를 확보하지 않았다. 현재는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이 들어 가므로 종교부지 마련을 위한 주민들의 동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 등단동 방생선원의 경우, 공사착공 2년4개월이 지났는데도 사찰진입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에는 법원에 화제가 발생했는데도 소방차가 올라오지 못해 전소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이 사찰의 한 스님은 "사찰이 고지

대에 있어 어린이는 아예 올라갈 엄두를 못내고 있고, 어른들도 정장차림으로 올라오기 힘들 정도로 길만 내렸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소음공해도 심각하다. 하루에 많으면 8차례나 폭파를 실시하고 굴착기 소리 때문에 정상적인 법회 운영을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명태 변호사는 "현행 법으로는 사찰이 재개발을 반대해도 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강제철거도 가능하므로 재개발을 위한 주민 동의과정부터 사찰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을 위해 개발사업을 무분별하게 진행할 소지가 많으므로 종단차원에서 사찰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마련과 함께 상당창구도 개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공명선거 '안' 과 '밖' 4·11총선을 앞두고 종단합선하 공명선거계도 위원회(위원장 원서)는 지난 3일 조계사에서 공명선거 캠페인을 갖고 탑골공원까지 가두행진을 펼쳤다(사진 위). 이에 앞서 2일 '불심물래기'에 부실하고 있는 신한국당 이종구 전 국무총리 서석재 전 총무처장관등 간부들이 철보시와 조계사를 참배, 불교 표방다지기에 나섰다. (사진=고영태 기자)

# "선암사앞 아파트건설 막자"

## 스님·신도들 '전사법 무시처사' 즉각철회 주장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사가 부산 부암동 소재 선암사(주지 덕륜) 소유토지 2만4천여평을 수용,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키로 함에 따라 선암사 스님과 신도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2일 선암사 스님, 신도 3백여명은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사 앞에서 전통사찰 수호 특별법회를 갖고 "주공측의 선암사 대응전 기점 1백40m지점까지의 토지수용은 전통사찰보존법을 무시한 위법"이라 단정하고 이의 즉각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선암사측은 주공이 일방적으로 94년 11월과 95년 6월, 2회에 걸쳐 부산지방법원에 88억7천만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 공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말하고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5층 규모의 아파트 3천9백세대가 들어서게 되면 아파트가 선암사를 병풍처럼 둘러싸게 돼 문화재와 환경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당국의 정책을 비난했다. 한편 일부 신도들이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사 건물에서

아파트 건설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주공측은 토지수용은 적법한 절차였다고 맞서고 있다.

**교과서 불교내용 고찰 13일 교법사단 세미나**

전국 교법사단(단장 김종환)은 오는 13일 한국일보 13층 송년클럽에서 창간 5주년 기념 2002년 월드컵유치기원 장애인 국토종단경기 대행진 23일부터 5월 3일까지

2002년 월드컵 유치를 위한 국토종단 장애인경기 대행진(대회장 종하스님)이 오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진행된다. 국토종단 장애인 경기대회 추진위와 MBC문화방송사업국 주최로 열리는 이번대회는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 복지회 경기지부, 중앙재활원이 주관한다.

이번대회는 오는 23일 서울 영등포 구민회관에서 출석식

법회 및 '국정교과서에 나타난 불교관련 내용 고찰'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정교과서에 나타난 불교 관련내용 고찰'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광동중 채성만교법사가 '중학교과서에 나타난 불교내용'과 고우익 등 대부중 교법사가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 나타난 불교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을 시작으로 제주도, 부산, 마산, 광주, 전주, 대구, 원주, 청주, 대전을 거쳐 다시 서울에 모여 일진각에서 통일열원제를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또한 행진기간 동안 각지역의 장애인들에게 철재 등 보장기구가 전달될 예정이며 장애인 40쌍의 합동결혼식도 병행하게 된다.

**나누는 연등, 나누는 마음**  
불교유연등산물기 캠페인

# 남북교민절반이상선호

우리나라 사람들의 남골당 선호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한국토지행정학회(회장 김태복·중부대교수)가 최근 전국의 성인남녀 1천29명을 대상으로 장묘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6.8%가 남골당 안치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귀하와 배우자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장례방법'을 묻는 질문에 '화장 또는 남골당 안치'는 37.9%, '시한부매장 후 남골당 안치'는 18.9%였다. '매장한다'는 의견은 사회지도층의 출신수준(29.5%), 화장·남골당시설 현대화(25.0%), 시한부매장제 도입(19.2%), 정부의 정책의지(15.5%) 순으로 응답했다. 장례방법 결정에 종교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71.9%가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또 풍수지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믿는 편이다'가 10.0%, '어느 정도 믿는 편'이 56.7%로 응답해 많은 국민들이 풍수지리를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김태복교수는

## 토지행정학회 '장묘문화개선' 의식조사

### "국토모지화 막자" 39%... 시설현대화 시급

43.1%로, 지난해 4월 한국보건의사회연 구원의 의식조사에서 매장에 찬성한다는 49.9%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매장 중심의 장묘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장묘시설을 관광·레저시설과 병행하는 것에는 적합하다(15.0%)보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51.8%로 훨씬 많았다.

국토가 묘지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39.0%가 '결코 안된다'고 답해 묘지 확장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매장선호 관행 때문에 경관훼손은 물론 국토개발에 큰 지장이 생기면서 묘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현대화된 남골당시설을 갖춘 경우 매장을 고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95년말 현재 우리나라 묘지면적은 국토의 1%가 넘는 약 982km<sup>2</sup>. 분묘수는 약 2만여기에 이른다. 시설 및 공설 묘지는 242개소인 반면 화장장은 46개소, 남골당은 54개소이다. 지난해 화장율은 약 22%로 추정된다.

## 조계종 관람료 사찰 작년 3천만명 입장

조계종 57개 관람료 사찰의 95년도 관람객은 총 2천9백여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람객은 신종사 2백 80여만명, 불국사 2백40여만명, 석굴암 1백70여만명 순이다.

## 정암사 만항지구개발 반대 '결의'

정암사, 산림훼손·수질오염 우려 표명

정부가 폐광촌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사북 고한지역을 관광복수지역으로 지정할 가운데 조계종 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현해)는 지난 4일 교구총회를 열고 정암사일대 만항지구 개발을 반대키로 결의했다.

교구총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정암사 만항지구는 희귀이종 열목어가 서식하는 천연 자연보호림지역으로 산림훼손과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며 "개발지역 선정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교구총회는 또한 "만항지구 개발은 천연고찰 정암사 적멸보궁의 수해와 보물 수마노탑 보존을 어렵게 하는 등 종교생활에 중대한 위협을 끼치게 된다"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총무원 재무부장 원우스님은 지난 총회에서 종학직의를 통해 "정암사 일대 개발이 유력시되고 있다"며 "사찰과 자연보호를 위해 개발

# 조계사 붕괴진행 원인은 지반침하 현대건설 '한국일보 신축공사' 중단

한국일보 신축공사로 총무원 청사와 조계사 대응전 문화교육관 해탈문이 붕괴진행을 보임에 따라 시공회사인 현대건설이 공사를 중단키로 했다.

조계사 총무원 청사붕괴와 임현용 현대건설 현장소장은 3일 새벽 △붕괴진행의 원인이 조계사 대응전과 불과 30여m 거리에 인접한 한국일보 사옥 신축공사에 있으며 △이때부터 우선 공사를 중지하고 △조계사 경내 건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또 △안전정밀진단을 실시해 적절한 개·보수조치를 했다. 이에따른 비용은 현대건설이 부담한다.

조계사는 지난해 한국일보사 옥 지하 24m의 지반굴착공사가 시작되면서 지반침하로 건물 붕괴위험이 있음을 발견, 현대 건설측에 공사중지를 요청했다.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도 지난해 29일 안전진단 결과, 공사현장에서 조계사 방향으로 지반침하 및 균열이 연속적으로 발생해 대응전 지붕이 가라앉고 상판보가 일부 부러져 붕괴조짐이 관찰되고 있다며 대

응전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건설이 공사를 계속 강행하자 지난달말부터 1주 일여 동안 조계사신도들이 종로구청과 현대건설 본사를 방문, 매일 공사중지와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왔다.

**"종교편향 대통령 공개사과" 요구**

30일 조계사 규탄대회

대구, 청원, 마산, 부산에 이은 김영삼정권 편향적 종교정책에 대한 규탄법회가 지난달 30일 조계사에서 불행했다.

실현승가회 석림회 전승륜 등 3백50여명의 스님과 1백여 명의 재가자들은 이날 법회에서 김영삼대통령의 공개사과와

## 해남 사암련 발족

해남불교사암련연합회가 지난 6일 대흥사 백담당에서 창립, 초대회장으로 삼각스님(은적사 주지)을 선출했다. 대흥사 미황사 등 해남지역 30여 사찰은 앞으로 정기적인 모임과 함께 △해남지역 포교활성화 △사회복지 등의 활동을 함께 펴나가며 오는 5월 부처님 오신날 행사도 함께 병행한다.

## 청교련 제주지부 창립

(사)대한불교청교련연합회(회장 현성) 제주지부는 지난달 23일 창립총회를 열어 고봉사 제주관공전대학장을 초대지부장으로 선출하고 제주지역 청소년포교를 위한 각종 사업을 펼쳐키로 했다.

**마음 전 우주가 내 스승**

전 우주가 내 스승입니다. 잘 살펴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변의 모든 일로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가은요전)

**협찬 한마음선원 법체대회**

# 불교성지순례

귀의 삼보하옵고 지난 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특별 기획상품을 마련하였사오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기원합니다.

-혜초여행사 임직원 일동 송축-

**특별기획 1 중국 티벳 내팔 9일**

●일 정: 서울-상해(1)-성도(1)-라사(1)-장제-시가체(1)-라사(2)-카트만두(1)-기내(1)-서울

●동참금: 230만원

●기 간: (1차) 3월 17일-3월 25일  
(2차) 5월 12일-5월 20일  
(3차) 6월 23일-7월 1일

**대만 성지순례 3박4일 4월 25일출발 모집중(확정)**

**특별기획 3 중국 불교 성지순례 9일**

●일 정: 서울-상해-보타산(2)-낙가산-영파(1)-천태산-항주(1)-구화산(2)-소주(1)-상해(1)-서울

●동참금: 135만원

●기 간: (1차) 4월 8일-4월 16일  
(2차) 5월 25일-6월 2일  
(3차) 6월 20일-6월 28일

**인도 성지순례 9일**

●일 정: 서울-델리-아그라-바라나시-부다가야-라지그르-나란다-파트나-쿠시나गर-룸비니-발람푸르-기원 정사-델리-서울

●동참금: 150만원

**특별기획 2 중국 불교유적지 13일**

●일 정: 서울-상해(1)-계림(2)-서안(1)-낙양(2)-8문석굴-소림사-정주(1)-태원-오대산(1)-대동(1)-운강석굴-북경(2)-서울

●동참금: 180만원

●기 간: (1차) 3월 23일-4월 4일  
(2차) 4월 22일-5월 4일  
(3차) 5월 27일-6월 8일

**대만 성지순례 5일**

●일 정: 서울-타이페이-고웅-불광사-화련-타이페이-서울

●동참금: 65만원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사원 5일**

●일 정: 서울-덴파사-족자카르타-보로부두르-자카르타-서울

●동참금: 95만원

**미얀마 태국 성지순례 8일**

●일 정: 서울-양곤-파간-만달레이-양곤-페구-양곤-방콕-서울

●동참금: 145만원

HVECHO ADVENTURE TOURS, LTD. 국외여행업 제604호

**이츠여행사**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 (대)

※각 사찰, 신도회 단체 성지순례, 수시 출발·상담환영 (일정조정 가능)